

致 辭

洪 性 澈 (보건사회부장관)



半世紀의 긴 歷史와 오랜 傳統을 이어온 貴協會 機關誌인 「大韓看護」가 이제 100호 發刊을 記錄함에 있어 그동안 看護員의 代辯誌로서 綜合學術誌로서 또한 國民保健向上을 위한 社會목표으로서 國家와 社會에 크게 기여하여 온데 대하여 眞心으로 致賀하는 바입니다.

政府는 지난 3次 5個年 期間동안에刮目한 만한 經濟成長에 힘입어 第4次 5個年 計劃 期間中에는 80年代의 福祉社會 建設을 위한 制度的 基礎를 確立하고 이를 擴散發展시키는데 總力を 傾注하고 있으며 더욱이 福祉社會 建設에 가장 中樞인 國民保健 및 醫療分野의 擴大 定着을 위하여 政府나 國民의 모든 勇氣와 智慧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政府의 施策은 最一線에서 勤務하고 있는 全 醫療人 모두가 公人이란 次元에서 國家의 責을 깊게 認識하여 現實에 充實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任務를 誠實히 遂行할 때 이 나라의 밝은 未來가 約束될 것입니다.

마침 이러한 國家 現實을 直視하고 있는 大韓看護協會에서 看護員들의 「참 看護」 實踐決議는 醫療活動 分野에서 새로운 歷史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새마음 새간호의 등불이 3萬 5千 看護員 個個人의 마음에 켜질 때야말로 保健醫療 分野뿐 아니라 나라 全體가 人情과 義理에 넘친 밝은 福祉社會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看護」 實踐決議가 口號에 그치지 말고 社會의 期待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實踐하여 추실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다시한번 大韓看護誌 100號 發刊을 致賀하고 貴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1979. 4.